광주일보 통해 탄생한 스타들 지금은

올해로 창사 57주년을 맞은 광주일보는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를 통해 지역 문화·체육계를 풍성하게 해왔다. 호남예술제를 비롯해, 수많은 육상스타들을 발굴한 3·1절 전국마라톤대회, 한국문단을 이끌고 있는 문인들을 배출한 광주일보 신춘문예 등이 대표적이다.

교수…연주가…체육인… 각계 '빛나는 별'

호남예술제

김남윤·서영화씨 등 강단서…강연균·곽재구씨 등 왕성한 활동

〈김남윤〉 〈신현수〉 〈임호열〉 〈강연균〉 〈김선희〉

올해로 55회를 맞는 호남예술제는 지금까지 참가 인원만 55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문화행사로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왔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분야는 음악. 특히 경쟁률이 치열한 바이올린과 피아노 분야의 경우 호남예술제 '최고상' 수상은 음악가로의 꿈을 키우려는 이들에게 좌표 역할을 했다.

현재 호남예술제 출신들은 음악 지도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남윤(한국예술종합학교), 김진숙(경희대), 김연교(호남신학대), 길애령(목포대), 서영화·김혜경(조선대), 강숙자·정애련(전남대), 박미애(광주대), 조수현(광신대)씨 등이 호남예술제를 거쳐왔다.

요즘 눈에 띄는 건 젊은 연주자들의 활약이다.

지난해 파리 롱티보 콩쿠르에서 1위 입상 주목을 받은 바이올리스트 신현수(21), 2006년 프랑스에서 열린 제21회 에피날국제콩쿠르 1등상과 프랑스음악상을 동시 수상한 임호열(23), 제7회 이슬람 페트렐라 국제콩쿠르 1위 입상자인 김아름(27) 등이다.

또 초·중·고 최고상을 휩쓴 바이올리니스트 양새미(34)씨는 미국신시내티 음대에서 박사 학위를 딴 뒤 현재 전남대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무용 분야 역시 면면이 화려하다. 지역 무용계를 이끌고 있는 이들은 거의 호남예술제가 배출한 인물이다.

조선대 무용과의 임지형·박준희·김미숙 교수와 정혜경 광주무용협회장, 박경숙·이영애 전시립무용단장등이 눈길을 끈다.

또 초·중·고 재학 당시 최고상을 수상한 후 미국과 러시아 유학을 마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재직중인 김선희씨와 서차영(세종대), 김화숙(원광대), 김화례(경희대), 신정희(경성대)씨 등도 전국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밖에 미술의 강연균·최쌍중·배동신·최영훈, 문학의 양성우·고재종·곽재구, 국악의 박종선·선영숙·문명자씨 등도 호남예술제가 배출한 인물이다.

신춘문예

김준태씨 지역문단 이끌고 이미란 교수 후학 양성

〈김준태〉 〈이미란〉 〈채희윤〉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부터 시작된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돼왔다.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대표적 시인으로는 김준태, 임동확, 김선태씨가 있다.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등 5·18을 노래한 시인으로 알려진 김준태 시인은 민족작가 대표시인으로 꾸준히 활동중이다.

시작(詩作)은 물론 시평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임동확(한신대 교수)씨는 버마·미얀마 등 문인들과 교류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선태(목포대 교수)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전남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미란 교수는 최근 '꽃의 연원' 등 중장편을 쏟아내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소설 '한 꽃살문에 관한 전설' 등으로 잘 알려진 송은일씨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송씨의 장편소설 '반야'가 렛츠필름과 드라마 제작계약을 맺기도 했다.

지금은 분야가 없어졌지만 희곡부문 출신 작가도 쟁쟁하다. 한옥근씨는 조선대 교수로, 소설가로도 활동중인 채희윤씨는 광주여대 교수로 재직하며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동시·동화 분야에서는 전원범(광주교대 교수), 윤삼현(율곡초등학교 교사)씨가 시집과 동화집을 내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0년 동시로 당선된 김성범씨는 '2002년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을 수상했으며 곡성 섬진강변에 도깨비마을 촌장으로 동화책, 창작동요 음반을 내는 등 다양한 장르에서 문화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광주일보는 신춘문예 출신 작가들의 왕성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광주일보 문학상'을 제정 운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송은일(소설), 주원규(소설), 강윤미(시), 이미란(소설)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3·1절 마라톤 대회

올림픽 국가대표 김재룡 한전 감독으로 '제2 인생'

〈김재룡〉

올해로 제44회 대회를 지난 3월1일 마친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는 55년전인 1954년 3월 7일 정오에 첫 출발 총성이 울렸다. 당시 대회 명칭은 '3·1절 기념 전일단축마라톤대회' 였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지역 최고의 마라톤대회로 자리잡은 만큼 그간 숱한 스타도 배출했다.

제1회 대회 일반부 우승자인 강방원(81)옹은 현재 전남육상연맹 회장을 맡으며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육상 외길 인생을 걸어오고 있다. 광주일보 대회가 발굴해낸 최고의 스타는 단연 1992년 제25회 바르셀로나올림픽(7월26일~8월10일)에 한국마라톤 대표로 출전했던 김재룡(46) 씨이다. 오랫동안 국내 간판급 마라톤 스타로 활약하다 지금은 한전 육상팀 감독으로서 제2의 마라톤 인생을 달리고 있다.

22회(81년)대회 우승자이며 84년 LA 올림픽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김원식씨는 현재 함평나산중에서, 22회~25회까지 4연패한 육철수(48)씨는 전남대사대부고에서 각각 제자들 육성에 전력하고 있다.

12·13회(1971·1972년) 고등부 우승자 문흥주(61·당시 조대부고)씨는 지난 84~87년까지 상무 육상팀에서 지도자 길을 걷다가 지금은 마라톤교실에서 매니아들과 함께 달리는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반면 당시 지역 육상스타로 활약했다가 지금은 아쉽게 고인이 되어버린 마라토너들도 있다. 이상훈씨를 비롯 김해룡(4·6·7회 대회 우승), 오문수(11·14회 대회 우승) 옹 등이 기록만 남긴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스타들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화안내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약국사거리 ♡예매1544-0600

M관	노잉 (12세)	최고급관
2관	그림자살인(15세)	
3관	분노의 질주 (15세)	
4관	용의자 x의헌신(12세)/미쓰루시힐(12세) 우리집에 왜 왔니 (15세)	
5관	13구역 (15세)	
6관	엽문 (15세)	
7관	매란방(12세)	
8관	똥파리(18세)	
9관	노잉 (12세)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황토사랑 영화사랑 • 예매:www.joycbc.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뒷편)

1관	엽문 (12세)
2관	미쓰 루시힐 (12세)/신부들의 전쟁 (12세)
3관	노잉 (12세)
4관	노잉 (12세)
5관	우리집에 왜 왔니 (15세) 용의자 x의헌신(12세)
6관	더블스파이 (15세)
7관	13구역 (15세)
8관	분노의 질주 (15세)
9관	매란방 (12세)
10관	그림자살인 (15세)

상무점 전관 좌석 교체!!
1588-7941
상담원연결 방법 →1번 or 2번→0번
쾌적하고 편안한 좌석에서 영화의 감동을 느껴보세요!

고객사랑 고객감동 • www.hamicinema.co.kr/ 1588-8120
하미 시네마
전대후문 하미스포렉스 ☎ 267-7777

1관	드래곤볼 에볼루션 (전체)
2관	분노의 질주 (15세)
3관	작전 (15세)
4관	워낭소리 (전체)
5관	분노의 질주 (15세)
6관	슬픔보다 더슬픈이야기(15세)
7관	카오스 (15세)
8관	푸시 (15세)
9관	신부들의 전쟁 (12세)
10관	실종 (18세)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무료) • 365 매일 심야
• 이용 통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하미 수영장 269-5757 • 하미 볼링장 262-0925
• 하미 골프장 251-5060 • 하미 당구장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1544-0070
씨너스 전대
복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매란방 (12세)
2관	내남자의 아내도 좋아 (15세)
3관	13구역 (15세)
4관	분노의 질주 (15세) 슬럼독밀리어네어 (15세)
5관	우리집에 왜 왔니 (18세)
6관	그림자살인 (15세)
7관	노잉 (12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아동용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녹차 사우나(오전5시~오후1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ilcinema.co.kr •
제 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노잉 (12세)
2관	엽문 (15세)
3관	내남자의 아내도 좋아 (15세)
4관	그림자살인 (15세)
5관	안나와 알렉스(15세)
6관	미쓰 루시힐 (12세)/분노의 질주 (15세)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및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